

“무안을 서남권 경제수도·글로벌 에어시티로 육성”

김영록 지사, 정책비전투어...동북아 거점 공항 등 제시
SOC 확충...K푸드 메카·에너지·첨단농산업 전략 공유
전남연구원 9대 핵심비전 제시...지역민 생활현안 논의

전남 무안군을 ‘글로벌 에어시티’로 육성하고,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서남권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15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나광국 전남도의원, 군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정책비전투어’를 열고 무안군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김산 무안군수는 환영사에서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

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비전투어가 균형과 상생의 발전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농어촌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무안은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남의 행정수도인 무안이 서남권 경제수도이자 글로벌 에어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연구원은 ‘하늘과 바다, 생명과 미래를 잇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무안’을 슬로건으로 무안의 미래를 이끌 9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에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첨단산업 유치 △공공 주도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첨단 K-푸드 플러스 산업 메카 도약 △글로벌 해양생태도시 조성 △인구 20만명 도농복합도시 완성 △서남권 해양관광벨트 구축 △헬니스 생태도시 조성 △무안 도자 산업 명품화 △무안국제공항의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 △핵심 SOC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회에서는 군민과 김영록 지사, 전남도 실·국장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생활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가 논의됐다.

이점복 일로읍 망월1리 이장은 “오룡2

지구 택지개발 준공 이후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 남악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죽산IC와 연결되는 군도 49호선 개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남악·오통지구 진입도로(IC) 신설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군도 49호선 확·포장 사업까지 해당 IC 사업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귀만 한국4-H무안군본부 회장은 “무안은 전남 전체 농 재배 면적의 25%를 차

지하지만, 선별 시설이 부족해 농가 불편이 크다”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농 선별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도 자체 사업으로 임대 농가에게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안군을 통해 내년도 사업 신청이 이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책 비전 토론회에서는 무안항도갯벌랜드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 전남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 확대, 낙지 급어기 조정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 지·산·학·연 혁신 정책박람회에 참석하여 참여공공기관, 광주RISE 참여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18개 공공기관, 우수정책 성과 공유

지산학연 혁신 정책박람회
17일까지 광주시청 1층서

라이즈사업 참여대학 참여
내년 ‘지역혁신 과제’ 모색

강 등으로 구성됐다.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공공기관별 우수 정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 전시가 진행된다.

종합성과 보고회에서는 지역 공공기관과 광주라이즈(RISE) 참여대학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업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지·산·학·연 협력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혁신사례 토론회에서는 ‘지역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5국3특 균형정책과 RISE 재구조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 초청 강연에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나는 전라도 사람이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기정 시장은 “지·산·학·연은 광주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성장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라이즈(RISE)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 강화돼 청년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도시인 만큼, 새해에도 협력을 통해 더욱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도시철도1호선 안전·관제시스템 고도화

시, 내년 19억5000만원 확보
고속·대용량 철도통신망 구축
실시간 공유·재난 대응 강화

광주 도시철도1호선이 차세대 철도통신망인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사업비로 국비 19억5000만원이 반

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에 따라 LTE 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되는 통합 철도무선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터널 등 통신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도 통신이 가능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방식은 음성 및 저용량 문자 중심으로 터널 구간 등에서 통신 장애 발

생 우려가 있었지만 철도통합무선망(LTE-R)이 구축되면 고화질 영상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실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관제와 사고 현장 영상 공유가 가능해져 화재, 테러, 응급 환자 등 긴급상황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기관과 음성·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현장대응과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관제시스템과 본선, 20개 역사, 차량기지 2개소, 열차 23편성 등 도시철도1호선 전 구간에 걸쳐 구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운전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중호 시 광역교통과장은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으로 도시철도 1호선의 통신·관제 시스템이 국가 기준에 맞춰 고도화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재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